

경찰청·도로교통공단 2016~2020년 보행 교통사고 분석

초등생 교통사고 '오후 4~6시' 최다

27.5% 차지...학교 주변·아파트 등 주택가 빈번 광주·전남 1134명 사상... '1~2학년' 절반 육박

초등학생 보행사고의 절반 이상이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방과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상자의 절반이 저학년인 1~2학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학년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지난 5년(2016~2020년)간 초등학생 보행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보행 사상자 1164명(사망 8명)의 절반 이상이 오후 2시~6시 사이에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하교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4시와 4~6시에는 각각 287명(24.6%), 312명(26.8%)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행사망자 8명 중 절반이 이 시간대(오후 2~6시)에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간대에 전체 51.5%의 초등학생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는 학년이 낮을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다.

1학년(276명)과 2학년(277명) 보행사상자는 551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3학년은 207명, 고학년인 4~6학년은 각각 142명, 143명, 119명으로 저학년에 견줘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보행교통사고를 계절별로 분석하면 봄 29%, 여름 27.4%, 가을 23%, 겨울 20%로 산학기인 봄철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신학기, 학년별로는 저학년의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개학에 맞춰 저학년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다행히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시행과 도심 속 차량 주행속도 하향 등의 영향으로 초등 보행 사상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79명에 달했던 광주·전남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는 4년 만인 2020년 128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3월 한달 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같은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오후 시간대는 초등학생의 야외활동이 많아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안전보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동환 전 교장, 전남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김동환(52) 전 보성 특목남초등학교 교장이 지난 28일 '젊고 새롭게 조화로운 전남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전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의 세월은 교육 혁신 실험의 연속이었다"며 "전교조 세력이 아닌, 좌우에 편향되지 않는 조화로운 전남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전남교육감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제 전교조 집권 12년을 끝내고 올바른 교육 철학과 선한 의지를 가진 젊고 새로운 인물을 교육감으로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교직원 강제 순환 전보 폐지 ▲아침·방학 중 급식 ▲지역별 우수고등학교 지원 ▲행정업무 거점학교 운영 ▲교장공모 직선제로 개선 ▲글로벌 유학정보 지원센터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와 학부모 공개 시스템 도입 ▲돌봄교실 운영 지원 단 설립 ▲전남형 교육도시 에듀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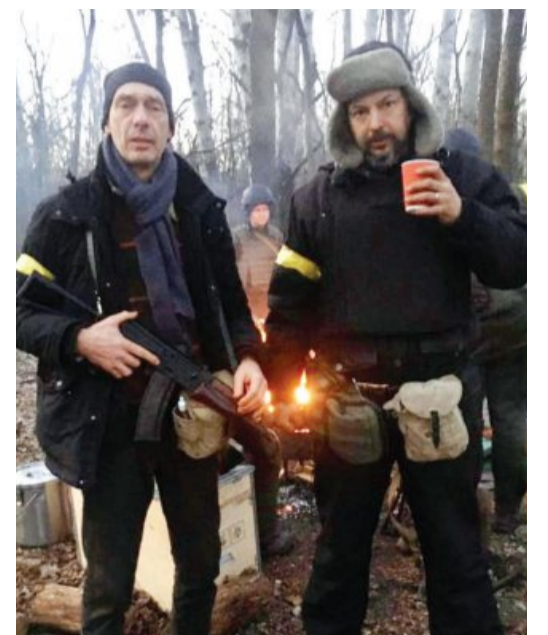
김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달 28일 광주시 동구 민주광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제공)



우크라이나 시민군 비탈리 레온추크가 더블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보내온 동료 시민군 모습.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하라"

광주·전남 시민단체 촉구...민주당 광주 선대위, 인도적 지원 모색

광주·전남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는 러시아의 전쟁을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블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살피고 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현지 시민군과 영상통화를 진행했다.

1일 더블어민주당 광주 기언지 선대위와 이동학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새벽 3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사는 비탈리 레온

추크(40)씨와 10여분간 영상통화를 진행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발한 직후 가족을 안전한 곳에 은신시키고 자발적으로 시민군에 참여한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18살부터 60살까지 시민군 뿐 아니라 여성, 동원령 의무가 없는 60살 이상 노인들까지 가정에서 화염병과 재래식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식료품과 의약품,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더블어민주당 광주 선대위는 이날 오후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개 광주·전남 시민단체도 이날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산정지구 공공갈등 해결 위해 광주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시민단체 제안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산정지구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광주시 도시계획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은 성명을 내고 광산구 산정지구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안했다.

2029년까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168만

m²(51만평) 부지에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1만3000세대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산정지구 사업이 원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가 해결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되는 개발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중

립적인 전문가를 투입해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 심층 면담을 거쳐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한 절차인 '갈등영향분석'을 내놔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3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승락 도시산책 대표는 "광주시는 산정지구 갈등영향분석을 조속히 실시해 산정지구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장에 정용연 교수 임명

전남대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제10대 병원장에 정용연 영상의학과 교수, 전남대치과병원 제7대 병원장에 조진형 치과교정과 교수를 임명했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화순전남대병원 5층 회의실에서 59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전임 보직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인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전남대병원은 또 본원 사무국장에 김영민 화순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정용연 신임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화순전남대병원 기획담당·임상시험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

임했다.

조진형 신임 전남대치과병원장은 전남대 치의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병원 치과진료처장 직무대행·치과진료부장·치과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민 신임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은 화순전남대병원 사무국장,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직무대행·기획예산과장·원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